

# 덩치 키우는 '오금 모임'... 민주 계파 청산 나섰다

(오더 금지 모임)

13명으로 출발... 회원 규모 현재 56명 '자정운동'

차기 당권 사고 주류·비주류 위험한 대결 '제동'

민주통합당의 차기 당권을 둘러싼 계파 대결 양상이 위험 수위로 치닫는 가운데 당내에서 계파주의를 타파하자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어 대표 경선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대표 경선에서 지역위원장이 대의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줄을 세우는 이른바 '오더(지침 문고)'를 청산하자는 자정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계파정치 폐해 해소를 내세워 전·현직 의원들이 지난 11일 발족한 '오금(오더금지) 모임'이 대표적이다. 당초 13명으로 출발한 이 모임은 지난 30일 현재 회원 규모가 56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신경민, 안민석, 양승조, 우원식, 조정태 의원 등 최고위원 후보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오금 모임은 '오더 금지'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 신고하라"며 오는 3일까지 자진탈퇴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모임에 가입해 놓고도 '오더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인사들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고강도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대기간 각 지역위원회 대의원 및 당원들로부터 제보를 접수하기로 했다.



무슨 얘기 나눌까?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김한길 의원이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종걸, 안규백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권을 둘러싼 범주류와 비주류간 대결양상은 경선일이 다가올수록 격화되고 있다. 친노 진영은 범주류 단일화를 계기로 비주류인 김한길 후보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여

가며 '반(反)김한길 전선' 강화를 위한 세 걸침에 나선 모양새다. 친노 의원 10여명은 전날 오후 회동을 갖고 대표 경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결속을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후보 측에서는 내부 조직을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등 긴장감을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판세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인대 의원은 이날 오금 회원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실질적인 계파청산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모임에 동참한 지역위원장이 본 취지와 달리 대의원에게 오더를 내리는 위원장에 대해서는 전대 후라도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전대 레이스가 범주류(친노+주류)와 비주류 간 양보 없는 당권 쟁탈전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정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대의원 투표가 전체 투표 결과의 5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과연 각 후보 진영에 포진한 현역 의원들이 대의원들에 대한 '오더'의 유혹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오금모임'에 참여한 신경민 최고위원 후보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나와 "계파에 의지하지 않고 뛰는 후보는 거의 없다"며 "계파청산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조차 계파에 의지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당 내에서는 계파주의의 자정 활동이 대의원들의 자발적 결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김한길 후보보다는 이용섭 후보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 '정년 60세법' 통과

국회 본회의... 하도급 손해배상 최고 3배

'정년 60세 연장법'과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바꿨다. 애초 이 법안은 정년 보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임금피크제의 세부 규칙이 사업장별로 다양해 법률로 명시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는 임금피크제·임금조정 등의 표현 대신 '임금 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대신했다.

하지만, 계계를 중심으로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여야는 그 절충점으로 정년을 60세로 보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지원금,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가이드라인,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했다.

국회는 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 과정에서 상정조차 못했던 화랑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대한 법률)은 환경부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현행 회계연도 '90일 전'까지인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제출 시기를 2015년도 예산안부터 해마다 10일씩 앞당겨 2017년도 예산안부터는 '120일 전'까지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연봉 5억 원 이상 기업 경영진(등기임원)의 개인별 연봉 내역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법,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법안 등을 가결시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F1 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 '박남매' 있었다

박지원-박혜자 의원 유기적인 공조

특유의 친화력으로 여당 의원 설득



박지원 의원 박혜자 의원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F1(포틀러 원) 코리아 그랑프리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배경에는 '박 남매(박지원-박혜자 의원)'의 유기적인 공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박혜자(서구 갑) 의원은 F1 특별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상정 및 전체회의 통과까지 집담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측은 F1 대회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제 경기대회가 아니고 상업적 성격이 강한 대회라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박 의원은 F1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인데 대통령 공약 사업이 국가 홍보는 물론 경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F1 특별법 개정

안에 미온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자 의원의 노력으로 F1 특별법이 문교위를 통과,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자 박지원 의원은 F1 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

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법안이라며 여야 의원들을 설득, 후순위에 있던 개정안의 심사 순위를 앞당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F1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박혜자 의원과 법사위의 박지원 의원의 공조가 힘을 발휘했다"며 "특히 문교위를 통과,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자 박지원 의원은 F1 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 유효' 통일부 당국자

정부는 개성공단 잔류인원의 철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이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화의 장을 열어 있다고 했고 당국간 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정산, 세금 납부 등의 문제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한 뒤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7명을 귀환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들 7명이 북한 측과 협상을 마치고 무사 귀환할 때까지 단전·단수 문제 등 철수 후 취할 조치에 대한 검토는 미룰 방침이 없다고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신당 창당, 세력화 불가피' 윤여준 "정계개편 가능성"



당 입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자살행위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서 승부를 겨뤄야 한다"며 "안철수 신당"의 필요성을 조언했다.

한편, 안 의원과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는 이날 조출한 '은혼식'을 가졌다. 안 의원은 이날 김 교수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결혼 25주년을 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서울대 의대 재학 시절 캠퍼스 커플로 만났다. 슬하에 딸 셋째가 있다. 김 교수는 여수 출신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카락이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수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불을 뿜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 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고나 눈에 이물질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दार라한의원 광주점 원장 김동권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일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기 위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으로 대처해야 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

인दार라한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1106-중-9819호 [광고]

www.semenergy.co.kr / greenpw.co.kr

태양광 R.P.S사업부

## "햇빛 재테크" 소용량(10~30kw)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대용량 설치 가능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 4.5배 이상 기대)

년 480만(예상수익)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예상
년 960만(예상수익)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예상
년 1440만(예상수익)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예상

\*인증서 판매가격:입찰을통하여 결정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자부담 550 ~680만원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설치비용은 1년거치 5년상환제로 결제가능(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가능(cnh할부)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300~400kw의 전력이 생산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절감 됩니다.

(주)셈에너지 그린파워  
광주 총판 TEL.1577-8905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9-31F 019-624-2371